

광주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가보니

# 지역민의 건강한 삶 'AI 헬스케어'로 챙긴다

### 동구 창업지원센터 2층...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3D 모션센서 이용 체력 측정 등 14종 장비 갖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실증 장비로 지역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집니다.”

광주 동구 서석동 창업지원센터 2층에 위치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이곳에서는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앱을 개발, 시민에게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클라우드를 기반한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14종의 장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 기초, 신체 기능, 두뇌 인지능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VR(가상현실) 검사, 3D 모션센서를 이용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구 앞에 마련된 키오스크에 안전인증, 전화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행평가 시스템에서는 런닝머신처럼 20초 동안 천천히 걸으면 카메라로 체형 등을 파악한 뒤 분석기에서 전·후·좌·우를 사진 촬영, 신체균형, 자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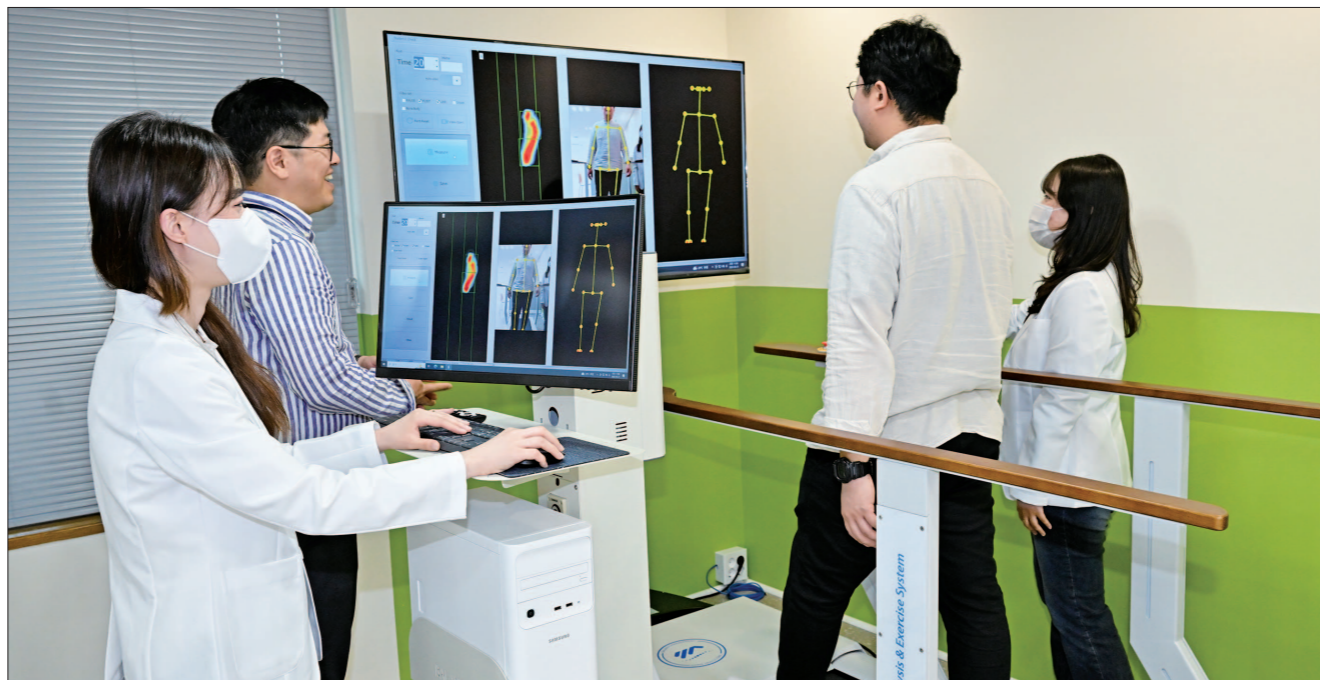
등을 분석해 거북목, 골반틀어짐, 족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간호사는 방문객에게 기록지를 보여주면서 몸 균형을 대한 설명을 해준다.

이와 함께 3D 모션 센서를 이용한 PTSD VR검사는 운전 중 전면, 후면, 측면 충돌사고 사례를 3~4분 동안 입체영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VR장비를 착용한 후 가상현실에서 도로를 주행해 사고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체력측정·운동 가이드 시스템은 카메라를 활용해 밸런스 운동, 스텝·점프, 고강도 운동으로 순발력, 민첩성, 근력, 유연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두뇌인지측정실에 마련된 치매선별 검사기는 인지평가, 인지학습, 심리안, 회상활동 등 4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인지평가는 치매조기선별검사(MMSE-DS)로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머칠입니까’를 묻거나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 해주세요’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이 되는 경우 같은 건물 7층에



27일 광주 동구창업지원센터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AI헬스케어 실증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체형, 족압, 보행 등을 측정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위치한 동구 치매관리센터로 안내한다.

우울증 음성 감정 시스템은 방음 공간에 방문자가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등 10초 이상 말을 녹음한 뒤 우울, 정

리 분석 결과 사용자의 기분은 정상으로 예측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시스템은 목소리 높낮이로 ‘우울증’, ‘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지난 22일 개관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주말, 공휴일 휴관)하며, 건강검진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이고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은 홈페이지(www.ghealth.or.kr)

또는 유선접수로 가능하다.

입력 동구청장은 “AI 헬스케어 데이터와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신규 데이터가 결합해 지역 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실증 장비를 활용해 지역민의 질환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건강칼럼

### “눈 상태에 맞는 시력교정술 중요”

#### 온도·습도 영향 ‘無’...직업·생활환경 등 고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시력교정술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답거나 습한 날씨에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정답은 ‘걱정할 필요 없다’이다. 시력교정술은 습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술실에서 진행돼 계절과 무관하다.

물론 한 달 정도 물놀이 등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지만 계절보다는 직업, 생활환경, 눈의 상태 등의 영향이 더 크다.

우선 시력교정술의 대표적인 수술은 라식과 라섹으로 나눌 수 있다.

라식은 각막을 얇게 포를 뜨듯 푸경을 만들어 열어놓은 뒤 각막을 꺾은 후 이를 그대로 덮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일 이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외부

라섹은 각막 가장 위쪽의 상피 부분을 얇게 벗겨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술 시 벗겨냈던 각막상피가 재생되기까지 3~4일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완전한 시력 회복까지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환자들은 라식과 라섹을 고민하지만, 눈 상태를 면밀히

살펴 자신의 눈에 맞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스미라시식이 부상하고 있다. 각막을 투과하는 펌프초(1000초 분의 1초)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 내에서 불룩렌즈 형태의 조각을 만든 후 2mm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제거하는 전혀 고통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다.

각막을 자를 필요 없이 표면 그대로를 유지, 자기 각막의 본래 건강성이 유지되는 게 장점이다. 따라서 각막확장증이나 각막흔들의 우려가 가장 적다. 최소한의 절개만으로도 시력교정이 가능해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후유증이 드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식과 라섹이 안 된다면 안내렌즈삽입술 ‘ICL’이 한 가지 방법이다.

눈 속에 특수렌즈를 넣는 수술로, 라식이나 라섹과 같이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과 달리 각막을 보존해 깨끗하고 안정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근시와 난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시력교정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개인마다 눈의 특징이 다르므로 여러 수술방법을 놓고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을 찾아보아야 한다.

도움말=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 남구 봉선동 힐링 쉼터 설치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투입

광주 남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 힐링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남구는 27일 “주민에게 편안한 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안근린공원 산책로 주변에 맨발 갈 신책로를 비롯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 주변 수목 등을 심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안근린공원 힐링 쉼터 조성 공사는 봉선동 주민의 제안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공원 외곽으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그늘에서 힐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대 기능을 겸비한 쉼 베드 타입 벤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강한사회
안전한의료

## 보건복지부 지정

# 「국민안심병원」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 질환과 분리된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 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국민안심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우리가족의 건강을 약속하는

광주기독병원은

우리병원입니다.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첨단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www.kshosp.com

KS+ KS병원

환상 깨어있는 KS병원

365일·24시간 응급의료센터

6인 전문의진료

목포시의료원

MOKPO CITY MEDICAL CENTER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 용해동 )

대표전화 : 061)260-6500 장례식장 : 061-260-6444